



간추린 청렴 소식

[1] 충주지청, '충주의 월요캠프' 진행



충주지청은 직원들의 일상 속 소회와 직접 작성한 청렴문구를, 방송지기(기관장)가 매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5개월간의 아침방송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높였습니다 😊

[2] 울산지검, '보물을 찾아라' 행사 진행

울산지검은 신청사 이전 10주년을 맞아 청사내·외에 청렴 장소 6곳을 선정하여 보물을 숨기고, 기관장이 전달한 힌트를 통해 전 직원이 이를 찾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곳곳에 새겨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며 실천하겠습니다*

[3] 인천지검, '나야! 청렴점자' 실시



인천지검은 훈맹정음(한글점자)을 창안한 송암 박두성선생 기념관을 방문하고, 기관장이 선정한 청렴 문구를 점자로 변환하여 청렴점자 퀴즈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흰지팡이 체험을 통해 배려하는 마음가짐을 배우고 한글점자의 원리를 이해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4] 대전지검, '청렴한 내마음 '붓' 잡고' 진행

대전지검은 '청렴'의 하양고 깨끗한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가래떡' 데이(11월 11일)를 맞아, 눈을 가린 채 청렴 문구를 붓글씨로 써보는 '한석봉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준비한 가래떡도 나누고, 총 6개의 당선작을 액자로 만들어 중앙현관 로비 및 민원실에 전시하였습니다.

검찰총장 신년사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내외적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 저력으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으나 한편으로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국가의 근간이 되는 가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법이 지켜지고, 국민 모두가 법의 보호 아래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같이 국민들이 힘들고 지칠 때, 검찰에 바라는 것은 없는지, 억울한 부분은 없었는지 한 번이라도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업무의 최종 책임은 총장이 집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읽는 스크린 속 청렴!

감성충전, 청렴 명대사



자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뭘 줄 아나?
둘 다 살 맛이 안 난다는거야.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1' 중

유례없는 흥행을 거두며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오징어게임'의 시즌2가 공개되면서 연일 화제입니다.

극단적인 빈곤과 과도한 부유함 모두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위 대사는, 삶의 행복은 단순히 물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보편적 진리를 전달합니다. 빈곤으로 인해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도, 부유하지만 목표의 부재로 허무를 느끼는 사람도 삶의 '맛'을 잃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죠. 현대인은 욕망의 무한경쟁 속에서 본질적인 만족감을 잃어가고 있는 듯합니다. 적정선을 알고 지나친 탐욕이나 과도한 물질적 소유를 추구하지 않는 청렴한 태도를 통해, 새해에는 모두가 공정하고 존중 받는 진정 살 '맛' 나는 한 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청렴이 있는 문화이야기

각국의 새해맞이 풍습

● 스페인 '포도 열두 알 먹기'



스페인에서는 새해 자정에 울려 퍼지는 열두 번의 종소리에 맞춰 포도 12알을 먹습니다. 열두 알의 포도는 열두 달의 행운을 상징하며, 이를 모두 먹으면 한 해 동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믿지요. 짧은 종소리에 맞춰 포도를 모두 먹기가 쉽지 않아 초보자들은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 덴마크 '현관에서 접시 깨기'



덴마크 사람들은 새해 전날 밤, 친구나 가족의 집 현관에서 접시를 깨뜨립니다. 지난해의 불운을 없애 주는 의식으로 깨진 조각이 많을수록 새해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여깁니다.



● 브라질 '소원 담은 색깔 속옷 입기'

브라질에서는 신년을 맞이할 때 입고 있는 속옷의 색깔이 다가올 새해의 운을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빨간색은 사랑, 흰색은 평화, 초록색은 건강, 파란색은 안정, 노란색은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 일본과 중국

일본에는 새해 전날 대청소를 마친 후, 한 해의 액운을 모두 끊고 긴 면발처럼 오래 살자는 의미가 담긴 메밀 국수(토시코시소바)를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새해 첫 날에는 소원을 적어 신사에 걸거나 일년 운세를 점치기 위해 '오미쿠지' 라고 불리는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죠.

중국사람들은 만두(자오쯔)·떡과 같은 동그란 모양의 음식을 먹으며 무사고를 기원하고, 새해에 복이 나가지 말라는 의미로 복(福)자를 거꾸로 달아 놓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은 나라마다 달라도,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며 서로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 같겠지요.

2025년에는 보다 '청렴'한 마음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

상식이 쑥쑥! 선물이 팡팡!



퀴즈 이벤트

다음 질문의 답을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개업식 장소에 자신의 기관 명칭이나 직위가 명기된 화분 등을 보내어 게시토록 하는 행위는 직무 관련 여부, 친인척 여부, 금액 여부에 관계 없이 행동강령 위반이다.

① O

② X

정답을 보내주신 대상자 중 **10명**을 추천하여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경품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과 주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응모기간 : 2025. 1. 19.까지

★ 응모방법 : 700spo69a@spo.go.kr

12월호 퀴즈 정답은

③ **백비탕** 입니다.

정답자 중 아래의 10명을 추천하여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축!
당첨

김OO(서울중앙), 김OO(대구고검), 김OO(대전), 이OO(군산), 김OO(남양주), 강OO(대검), 이OO(홍성), 박OO(수원), 백OO(인천), 안OO(외부)

청렴 한 컷



* 그림 출처: 프리픽

♣ 을사년(乙巳年)의 의미와 간지(干支)의 세계

새해가 다가오면 흔히 “올해는 무슨 해일까?” 라는 궁금증을 떠올립니다. 2025년은 을사년으로,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를 조합한 동아시아 전통 시간 체계 ‘간지(干支)’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천간’은 하늘의 기운을 상징하며 총 10개의 글자로 구성됩니다(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지지’는 땅의 기운을 나타내며 총 12개의 글자로 구성되지요(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 두 체계를 순서대로 결합하면 총 60가지 조합(육십갑자)이 생겨, 60년을 주기로 반복됩니다.

2025년은 천간의 ‘을(덩굴 또는 잎사귀처럼 유연하고 섬세하며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에너지를 의미하는 푸른 나무)’과 지지의 ‘사(지혜와 통찰, 변화의 상징인 뱀)’가 결합된 해로, **유연한 성장과 지혜로운 변화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해**로 풀이됩니다.

청렴, 맑고 깨끗하고 향기롭게